

제 목	국 문	부산지역 일부사업장 근로자의 요부손상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연구		
	영 문	A sociomedical survey of low back injuries in some industries of Pusan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돈균, 이수일, 조병만, 김대관, 이후락, 박종욱, 조봉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Don Kyoum Kim, Su Ill Lee, Byung Mann Cho, Dae Gwan Kim, Hoo Rak Lee, Jong Ook Park, Bong Soo Cho		
분 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재해	발 표 자	박종욱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요통은 전인구의 60-80%가 일생에 한번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산업장에서 재해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요통은 개인적인 고통 뿐만아니라 노동력 상실, 치료 및 보상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통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공단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과거 요통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설문조사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일부지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된 요부손상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요부손상의 유발요인, 재해의 종류, 요양기간, 요부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적조사하여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요통의 발생 예방과 대책에 관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부산의 일부지역(사업장수 4,863개소, 근로자수 298,669명)사업장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1년동안에 재해성 요통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 하였던 요부손상근로자 952명(남자 892명, 여자 60명)중 남자근로자 892명(요부단독 손상의 경우 543명, 요부손상 및 다른신체부위 복합손상 3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병력지 및 노동부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1) 요부손상을 입은 남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8.4 \pm 10.0(18.4 \sim 70.8)$ 세였다.

2)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35.4%), 운수·창고·통신업(30.9%), 건설업(23.2%)순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능직(41.7%), 단순노무직(26.8%), 운전기사(16.5%)순이었다.

3) 취업후 요부손상을 입은 시점까지의 기간을 누적 백분율로 보면 취업 첫날에 8.2%, 취업후 1년 이내가 55.4%, 10년까지가 90.9%였다.

4) 요부손상의 유발요인별 분포는 물건취급부주의(32.8%), 추락(27.2%), 전도(14.4%) 등이 흔하였으며, 그 외의 유발요인들로는 교통사고, 충돌, 붕괴, 낙하물에 의한 것, 불안정 자세, 협착 등이 있었다.

5) 요부손상으로 인한 평균요양기간은 143일(요부단독손상 : 130일, 요부손상 및 다른 신체부위 복합손상 : 163일) 요양으로 인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한 일 수는 총 12만 7천 606일(요부단독손상 : 7만 704일, 요부손상 및 다른신체부위 복합손상 : 5만 6천902일)이었다.

6) 직접보상비로 총 64억 252만원(요부단독손상 : 33억 4만원, 요부손상 및 다른 신체 부위 복합손상 : 31억 248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비용중 요양급여가 24.5%, 휴업 급여가 36.9%, 장해급여가 38.6%를 차지 하였다.

7)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22.9%인 204명(요부단독손상 : 20.6%,112명, 요부손상 및 다른 신체부위 복합손상 : 26.4%,92명)이었다.

8)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요부손상근로자의 12.1%(요부단독손상 10.7%, 요부 손상 및 다른신체부위 복합손상 : 14.3%)였다.

### 4. 고찰

근 골격계 손상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사회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요통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나 산업장 근로자들의 보상요구 건수 중에서 20 - 30%가 요부손상 이라는 외국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사회에서 요통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요통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이 노동부 예규 205호인 업무상재해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분석에서 상해의 종류나 직업병 분류자료에 재해성 요통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산업재해사고 중에서 요통이 차지하는 비율 및 그 경제적 손실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국내학자 및 산업재해 자문의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저자들을 본 조사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본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요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